

#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2년 10월30일

창조절 아홉째 주일

(종교개혁 505주년)

세계 교회력 「다」해 49주

♣ 오늘의 말씀- 이렇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 (살후 1:11)



마틴 루터가 활동한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당 내부 모습이다. 원래 가톨릭 성당이 었다가 루터 이후로 개신교회 건물이 되었다. 중앙 오른쪽 벽면에 루터가 설교하던 설교단이 보인다. (정 목사가 2016년 9~10월 '안식월' 여행 중에 찍은 사진)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5

주일 공동예배: 4:00-5:00/ 간식 및 친교 : 5:00-5:20

목사: 정용섭 010-8577-1227, 박재진, 이춘우,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e/churchs>

## 주일 공동예배 순서

### 개회예전

#### 예배의 부름 ... 사회자

시간은 왜 과거로는 흐르지 않고 미래로만 흐를까요. 강물은 왜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만 흐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비밀로 가득합니다. 그 비밀의 원천은 세상을 창조하고 완성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 41장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1, 2, 4절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창조절 아홉째 주일이면서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리는 주일을 맞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한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2천 년 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 공동체의 전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역사의 신비 앞에서  
한편으로 두렵고 다른 한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섭리라 믿기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에 집중하겠습니다.  
꾸준히 개혁의 길을 갔던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단순한 구호로 머물지 않고  
실제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능력으로 자리 잡기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더 나아가 교회의 단일성과 사도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을  
교회의 고유한 특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 (Sanctus) ... 다 함께

거룩하 - 시다 거룩하 - 시다 거룩하시도 - 다

만군의주 하 - 나 님 하늘과 땅 - 에 가 - 득한그영광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겨를이 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노력도 크게 부족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회중: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한반도의 오랜 분단으로 인해서 정의와 평화의 질서도 왜곡되었습니다. 우리가 포함된 한국교회는 이런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일에 관심과 의지를 포기한 채 자기 성장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주시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 다 함께

\*사죄선포

목사: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자비, 그리고 교회의 2천 년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예배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이제 그것으로 더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웃의 잘못도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영광송) ... 다 함께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찬송 「에큐메니칼 노래집」 65장 (한 빛에서 많은 빛이 나오네) ... 다 함께

♩. = 42 스웨덴

Em Am B7 Em

1. 한 빛 에 서 많 은 빛 이 나 오 네  
 2. 큰 나 무 가 많 은 가 지 를 뻗 네  
 3. 이 세 상 에 많 은 선 물 있 지 만  
 4. 우 리 앞 에 많 은 길 이 있 지 만  
 5. 교 회 안 에 많 은 사 람 있 지 만

Lå - gor-na är mång - a lju - set är ett

Am C/D D7 G

우 리 의 한 빛 예 수 -  
 우 리 의 나 무 예 수 -  
 가 장 큰 선 물 사 랑 -  
 우 리 의 참 길 예 수 -  
 우 리 의 주 인 예 수 -  
 lju - set Je - sus Kris - tus

Am D7 G B7

그 안 에 서 우 리 한 몸 을 이 루 네  
 lå - gor-na är mång - a lju - set är ett vi är

Em B7 Em

한 빛 예 수 -  
 나 무 예 수 -  
 사 랑 예 수 -  
 참 길 예 수 -  
 주 님 i ho - nom.

## 말 씬 예 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읽히고 해석되어 선포될 때 우리 영혼이 생기를 얻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말씀에서 소외당하지 않기를 원하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말씀 하박국 1:1~4, 2:1~4 ... 김기범 집사

성시교육 시편 32:1~7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복되기도 복되어라 이런사람 복되어라/ 거역한죄 용서받아 죄와허물 벗은사람  
-주님께서 그의잘못 더따지지 않으시니/ 그마음에 거짓없는 이런사람 복있구나  
나의입을 굳게닫고 죄를고백 안했을때/ 하루종일 신음으로 이몸탈진 되었다네  
-밤낮으로 주님손이 이내몸을 짓누르니/ 이내몸은 여름가뭄 풀시들듯 말랐다네  
주께죄를 고백했네 숨김없이 아뢰었네/ 주님께서 나의죄를 꽤히용서 하셨다네  
-경건한자 고난때에 우리주께 기도하리/ 고난홍수 밀려와도 그를해치 못하리라  
-주는우리 피난처니 곤경에서 건져내어/ 구원노래 찬양속에 모든곤경 없이하네

둘째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1~4, 11~12 ... 김기범 집사

\*셋째말씀 누가복음 19:1~10 ... 김기범 집사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의 ‘알렐루야’ ... 다 함께



설교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 박재진 목사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 다 함께

##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1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4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창조절 아홉째 주일이면서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2천 년 기독교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제 각자의 일상으로 흠어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 [알리는 말씀]

- \* 2023년도에 서울샘터교회를 위해 일할 운영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자 기도해 보시고 자원하실 분들은 운영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올해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11월 20일)입니다.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강단 장식용 과일 등을 한 가지씩만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간단히 교인들 근황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 \* 2022년 회계 감사는 11월 중에 진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인 나눔터에 올라온 월별 회계보고서를 참고하신 후 궁금한 점은 회계 박수진 집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 : 윤동희, 양혜선 집사)
- \* 지난주일(10월 23일) 헌금 : 400,000원(통장헌금 400,000원)  
헌금계좌 카카오뱅크 3333-14-2466417 박수진
- \* 예배위원 안내

날짜	설교	사회/ 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장소
10월30일	박재진목사	김기범집사	이기령집사	최선아.김용성/아트컬리지5
11월 6일	정용섭목사	김기범(사회) 오미영(봉독)	양혜선집사	최선아.박정덕/시청각실
11월13일	이춘우목사	박수진집사	이기령집사	오미영.박은숙/아트컬리지5
11월20일	박재진목사	양혜선집사	이기령집사	박수진.김희란/아트컬리지5
11월27일	이춘우목사	이유선집사	양혜선집사	박은숙.김용성/아트컬리지5
12월 4일	정용섭목사	윤혜정(사회) 이기령(봉독)	양혜선집사	최선아.박정덕/시청각실
12월11일	이춘우목사	고중흥집사	이기령집사	오미영.이유선/아트컬리지5
12월18일	박재진목사	오미영집사	양혜선집사	박수진.김희란/아트컬리지5
12월25일	김동호목사	박수진집사	이기령집사	박은숙.김용성/아트컬리지5

## 지난주일(10월23일) 설교 발췌

제목: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딤후 4:6~8, 16~18)

요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1:15, 2:1, 11, 31, 3: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여호와의 영을 받는 날입니다. 삶과 세상과 역사에 대한 우리의 시야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하나

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듯이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욥 2:31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 ”

묵시적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는 건 죽음의 징조입니다. 더는 버텨낼 수 없는 암흑의 순간입니다. 각자 그 경험은 다릅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범했을 수도 있고,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엘 시대에는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큰 재난이겠지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입니다. 요엘은 그런 일이 지나면, 아니 그런 일이 있어야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해가 어두워져도 괴로워하지 않을 겁니다. 곧 여호와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이런 요엘의 표현을 옳다고 믿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요엘에 따르면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없기에 크고 두려운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시시할지 모릅니다. 저는 죽은 다음에 최고도의 복지사회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황금 면류관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다른 사람은 오막살이에 사는데 저만 큰 저택에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는 위치에서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을 고소하게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면서 천국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다 시시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세상일까요? 씨에서 꽃이 피는 걸까요? 완전히 변화된 그런 세상을 마음에 둘 때만 우리는 예언하고 꿈꾸고 이상을 보는 것이겠지요.

초기 그리스도교는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행 2:16절 이하에서 욥 2:28절 이하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 배경은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었다고 설교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부활 사건을 가리킵니다. 요엘 선지자가 23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외쳤듯이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과감하게 설교한 겁니다.(행 2:38) 이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언하고 꿈꾸고 이상을 볼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영을 받을 것입니다.